영어어문교육 *제20권* 1호 2014년 봄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교사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윤 상 돈
(광풍중학교)

Yoon, Sangdon. (2014). An analytical review of teacher-related articl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0*(1), 449-47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teacher-related articl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over the past 19 years(1995~2013). Out of the total of 628 articles, 51 were selected for the present study. These studies were reviewed in terms of four perspectives: (1) historical trends, (2) main research topics, (3) levels of the subjects, (4) methodology of research.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12 articles out of 51 were conducted from 1995~2007 and 39 were done from 2008~2013. Articles about teacher in-service training were ranked highest. Out of the articles, 25% was about elementary school level, 34% was about middle school level, 33% was about high school level, and 25% was about college level. Empirical research was adapted as a methodology in 88.24% of teacher-related articles. Some trends and insights about teacher-related research could be ascer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teacher education/in-service training, 교사교육/교사연수]

Ⅰ. 서론

교육의 주체, 교육의 객체, 교육의 매개체를 일컬어 흔히 교육의 3요소라 한다. 물론 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교육의 매개체인 교수 자료, 교육과정 등은 교육의 객체인 학습자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의 객체인 학습자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객체와 더불어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역시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수법의 발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전의 문법-번역식 교수법 시기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중시되었던 반면,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시기에는 언어를 유창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배두본, 2000). 시대적 요구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재교육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가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세계적인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의 영어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에서는 초등의 경우, 영어교과전담교사, 담임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이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 영어교사, 영어회화전담강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방과 후 영어 강사 등이 영어교육을 전담하고 있어 다양한 교사에 의하여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의 정책 변화에 따라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협동수업(Team-teaching) 등이 영어교육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연구 중, 교사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교사 관련 연구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부터 교사 관련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영어어문교육*의 1995년 창간호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총 19권 50호에 수록된 연구 628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1], 그 중 영어교육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교사와 관련된 주제 즉, 교사 교육, 교사 연수, 교사 내적 요인, 원어민, 협동수업(team-teaching), TEE, 교수방법 등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분류 기준

분류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총 628편의 연구를 년도 및 권(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그 중 연구의 제목, 주제어, 초록의 검토 등을 통하여 교사와 관련된 연구 51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의 세부적

[1] 2013년에 발간된 19권은 그 분석 범위를 2호까지로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분류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중 포괄적인 주제 분류가 이루어진 차경환, 이원석, 심재황(2005), 유현정(2006), 송민종과 임정완(2010)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우선 교사 관련 연구의 시대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2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교사 관련 연구의 수록 편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교사연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협동수업(team-teaching), 원어민, 교수방법, 교사 내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고, 연구의 적용 수준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명관과 박옥희(2010)의 연구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우선 실증적(empirical) 연구와 이론적(theoretical) 연구로 구분하고, 실증적 연구는 다시 질적(qualitative) 연구, 양적(quantitative)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로 세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류 기준

분류기준	세부 사항
시기	1기: 1권~13권(1995~2007), 2기: 14권~19권(2008~2013)
연구 주제	교사연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협동수업(team-teaching), 원어민, 교수방법, 교사 내적 요인
적용 수준[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 이론적 연구

III. 연구 결과

1. 기간에 따른 분류

영어어문교육 학술지는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0년(6권)까지는 연 1회 발간하였고, 2001년(7권)부터 2003년(9권)까지는 연 2회 발간[3], 2004년(10권)은 연 3회를 발간하였으며, 이어 11권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기간에 따른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교육의 근간으로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적용 수준은 연구에 따라 그 범위가 초등, 중등으로 구분되거나 초중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3] 9권에는 2호의 정규호 발간 외에 특별호가 1회 추가로 발간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변화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사의 인식과 교수 방법 등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교사 관련 연구 동향의 고찰을 위하여 필요한 선행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어문교육* 학술지가 창간된 이후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영어어문교육* 학술지가 창간될 당시에는 6차 교육과정 시기였으며, 창간 2년 후인 1997년에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개정된 제 7차교육과정은 2000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2001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2002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원칙에 따라 2007년과 2009년에 개정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연구 수의 균형적 분배와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6차 교육과정과 7차교육과정 시기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수시 개정 원칙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의 2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2007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2007년[1]을 기준으로 1995년~2007년(1권~13권)을 1기로, 2008년~2013년(14권~19권)을 2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1기에 *영어어문교육* 학술지는 총 13권 28호가 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수록된 총 연구의 수는 318편이며 2기에는 6권 22호가 간행되어 총 310편의 연구가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류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기와 2기의 총 수록 연구 편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중 1기에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교사 관련 연구는 12편(총 연구 수 대비 3.77%)에 불과하다. 그러나 2기의 경우에는 교사 관련 연구가 39편(총 연구 수 대비 12.58%)로 분석되어 약 3배가 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1기의 실제 기간이 13년이고, 2기가 5년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기에 교사 관련 연구가 더욱 더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6년(2권)에는 총 7편의 연구 중 교사 관련 연구가 2편이 수록되어 해당 권의 전체 연구 수 대비 28.57%를 차지

[1] 2007 개정교육과정은 2007년 12월에 고시되었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 배부되어 교육과정 적용의 준비 단계는 2008년부터 이루어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 있다. 2009년(15권)에는 교사 관련 연구가 총 10편으로 해당 권의 전체 연구 수 대비 15.15%에 이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교사 관련 전체 연구 51편 대비 19.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연구가 한 편도 게재되지 않은 해는 1기에만 6년이 집중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간별 교사 관련 연구 현황

연도(권)	발행호수	연구 수	대상연구 수	연도별 전체 연구 수에 대한 대상 연구 수 비율	대상 연구의 연도별 분포 비율	비고
1995(1권)	1	8	0	0	0	
1996(2권)	1	7	2	28.57	3.92	
1997(3권)	1	13	1	7.69	1.96	
1998(4권)	1	13	0	0	0	
1999(5권)	1	12	0	0	0	
2000(6권)	1	12	0	0	0	
2001(7권)	2	21	2	9.52	3.92	1기
2002(8권)	2	26	1	3.85	1.96	
2003(9권)	3	35	0	0	0	
2004(10권)	3	27	1	3.70	1.96	
2005(11권)	4	49	0	0	0	
2006(12권)	4	48	3	6.25	5.88	
2007(13권)	4	47	2	4.26	3.92	
2008(14권)	4	53	8	15.09	15.69	
2009(15권)	4	66	10	15.15	19.61	
2010(16권)	4	55	7	12.73	13.73	2기
2011(17권)	4	59	8	13.56	15.69	
2012(18권)	4	51	3	5.88	5.88	
2013(19권)	2	26	3	11.54	5.88	
계	50	628	51		100	

2.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연구 51편의 제목, 주제어, 초록 등을 참고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교사와 관련된 연구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계로 주로 교사연수, 교사교육, 교사양성, 교사 내적 요인의 변화 등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나, 1994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점 과제로 지정한 국제화 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작된 1996년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의 영향으로 원어민 활용 수업 및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과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장 연구(action research) 등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수방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주제에 따른 분류 기준을 교사연수, TEE, 교수방법, 협동수업(team-teaching), 원어민, 교사 내적 요인의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연구는 총 51편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58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몇몇 연구가 다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연구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에 대한 각 주제별 연구의 비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연수와 관련된 연구가 22편(37.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13편(22.41%)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협동수업과 원어민에 대한 연구는 각각 7편(12.07%)씩 이루어졌으며,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는 6편(10.34%), 교사 내적 요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3편(5.17%)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제별 분류 결과를 앞에서 살펴봤던 시기별 분류(표 2 참조)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1기에 해당하는 1권~13권에는 교사연수 4편, TEE 1편, 협동수업 2편, 원어민 2편, 교수방법 2편, 내적요인 1편이 발간되었고, 2기인 14권~19권에는 교사연수 18편, TEE 12편, 협동수업 5편, 원어민 5편, 교수방법 4편, 내적요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4편(1기)에서 18편(2기)으로, TEE 관련 연구가 1편(1기)에서 12편(2기)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편수가 증가하였으나, 원어민 관련 연구는 4편(1기)에서 1편(2기)으로 감소하였다.

표 3

주제별 연구 현황

연도(권)	교사연수	TEE	교수방법	원어민	협동수업	내적요인	계
1995(1권)	0	0	0	0	0	0	0
1996(2권)	1	0	1	0	0	0	2
1997(3권)	1	0	0	0	0	0	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8(4권)	0	0	0	0	0	0	0
1999(5권)	0	0	0	0	0	0	0
2000(6권)	0	0	0	0	0	0	0
2001(7권)	0	1	0	0	1	0	2
2002(8권)	0	0	0	0	0	1	1
2003(9권)	0	0	0	0	0	0	0
2004(10권)	0	0	0	1	0	0	1
2005(11권)	0	0	0	0	0	0	0
2006(12권)	1	0	0	1	1	0	3
2007(13권)	1	0	1	0	0	0	2
1기 소계	**4**	**1**	**2**	**2**	**2**	**1**	**12**
2008(14권)	5	1	1	2	1	0	10
2009(15권)	3	2	2	1	1	2	11
2010(16권)	4	3	1	0	1	0	9
2011(17권)	3	4	1	1	0	0	9
2012(18권)	1	2	0	0	1	0	4
2013(19권)	2	0	0	1	0	0	3
2기 소계	**18**	**12**	**5**	**5**	**4**	**2**	**46**
합계(%)	22 (37.93)	13 (22.41)	7 (12.07)	7 (12.07)	6 (10.04)	3 (5.17)	58 (100)

이러한 연구의 흐름 변화는 교육 당국의 정책과 관련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정책은 국제화 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이 시작되어 2005년까지 총 1,762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채용하였으며, 2010년까지 2,90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김신혜와 곽병권, 2002; 김혜련과 고경석, 2008; 박미정과 나경희, 2009; 박정숙과 김대진, 2000), 그 결과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가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능력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실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활용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갖는 효과성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강상철과 김주후, 2011; 정광주, 1998; 최희경, 2008).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일선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수를 줄이고 우리나라 영어교사로 하여금 TEE 수업을 할 것을 강조하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으며, 대학에서도 영어전용강의의 대학 평가 반영 등 영어를 활용한 교수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TEE 흐름과 연계하여 영어교사의 연수 양상에도 집중심화연수[5] 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이러한 시대적, 정책적 배경으로 인하여 교사연수, 원어민, TEE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 동향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교사 연수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교사 연수 관련 연구는 총 22편(37.93%)으로 1기에 4편, 2기에 18편이 이루어졌다. 교사 연수 관련 연구는 크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관련 연구, 집중심화연수 관련 연구, 연수 모형 및 연수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 연수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별 교사 연수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교사 연수 관련 연구 현황

구분	연도	연구제목(저자)
자격연수	2007	중등 1급 정교사(영어) 자격연수 프로그램 분석: 대전,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김용오, 강용구, 강문구)
	2008	중등 1급 정교사(영어) 자격연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용오, 강용구, 송해성)
	2009	혼합식 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교사 연수 활성화 방안.(임병빈, 김재영)
	2008	중등 영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오석진)
집중 심화연수	2008	English teachers' language anxiety in the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in the classroom.(Unkyoung Maeng)
	2010	등 영어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화 연수 모형 개발 연구.(이문복, 이노신, 조민철)
	2010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와 교사변인 연구.(권선희)
	2011	초임 교사 멘토링을 통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후 지속적 전문성 신장에 대한 사례 연구.(장경숙, 김지영, 김규태)

[5] 집중심화연수란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합숙 또는 출퇴근형으로 운영되는 연수를 의미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모형 및 활성화	1996	Content and process in language teacher training.(Kyoung-suk Chang)
	1997	Examining teachers' beliefs about teaching English in a teacher training program.(Eun-Mi Yang)
	2006	Utilizing debate techniques in English speaking class.(Sook-Kyung Jung)
	2008	Developing English discourse competence through self-directed practices of non-native English teachers.(Seonghee Choi, Jeongsoon Joh, Yoan Lee)
	2008	Suggestions to improv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 education in Korea.(Sung-Ae Kim)
	2009	The effects of development strategies used by teacher trainers at an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Namsoon Kim)
	2009	English teachers' responses to doing action research.(Taesun Yang)
	2010	교내-교외 통합형 영어교사 연수 사례 연구: 한국 캠브리지 ICELT를 중심으로.(이효신)
	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action research: A case study of an EFL teacher learner.(Kyungja Ahn)
	2011	A case study of English teacher development through online supervision.(Kyungsuk Chang, Kyutae Jung)
	2011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방안 연구.(허근)
	2012	Exploring what Korean teachers of English need for effective professional development: from peer trainers' perspectives.(Hyoshin Lee)
	2013	Evaluation of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esting professionalism.(Kyungsuk Chang, Hunwoo Joo, Sieun Min)
	2013	수업언어 및 학업수준에 따른 중등 영어교사의 교수언어분석 사례연구.(김상겸, 임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관련된 연구는 중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과목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심화연수는 지난 2003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의 실행을 위하여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사로까지 그 연수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9년부터는 전국의 22개 관련 연수기관에서 연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전영주, 2009). 이러한 연수에 대한 동향을 반영하여 집중심화 연수와 관련된 연구는 2008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교사 연수와 관련된 연구 22편 중 14편이 연수 모형 및 연수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이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는 어느 특정 형태의 연수 모형이나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수 모형의 개발이나 해당 연수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활성화 방안, 연수 모형 개발시 고려 사항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2)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관련 연구는 총 13편(22.41%)으로 1기에 1편, 2기에 12편이 이루어져 1기와 2기의 편차가 가장 큰 분야이다. 이 중 Seonghee Choi, Jeongsoon Joh와 Yoan Lee(200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교사 연수 관련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TEE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TEE의 효과성 및 우리나라 영어교육상황에서의 효율적인 TEE 적용방안 모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TEE 관련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저자)
2001	The positive role of mother tongue as written form in English class.(Eun-Pyo Lee).
2008	Developing English discourse competence through self-directed practices of non-native English teachers.(Seonghee Choi, Jeongsoon Joh, Yoan Lee)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임병빈, 전영주)
2009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Does it promote cultural correction or cultural continuity?(Young Mi Kim)
2010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NNESTs) versus 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Perceptions.(Eunhee Han)
2010	Attitudes of learners, NESTs, & Korean NNESTs toward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in Korea. (Foreman Walter, Chan-Kyoo Min)
2010	The positive role of mother tongue as written form in English class.(Eunpyo Lee, Eunkyung Kim)
2011	Code-switching of English learners in the TEE program.(Eunjeo Kim, Sook Hee Choe)
2011	Korean students' perceptions of free-talking and international professors' role recognition.(Nahk-Bohk Kim)
2011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bout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TEE courses.(Taesun Yang)
2011	Learners' different views on Korean and native teachers of English.(Ree-Na Kim, Haedong Kim)
2012	English as an instructional medium in Korea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professors.(Soo Joung Choi)
2012	The effectiveness of code-switching and identity reconstruction.(Kyoung-Ae Oh, Young Mi Kim)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협동수업(team-teaching)

협동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총 7편(12.07%)으로 1기에 2편, 2기에 5편이 이루어졌다. 이 중 Foreman Walter와 Chan-Kyoo Min(2010)의 연구와 Ree-Na Kim과 Haedong Kim(2011)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교사 연수에도 포함되어 있다. 협동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협동수업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인 협동수업 방안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협동수업 관련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저자)
1996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통한 의사 소통 능력 신장 방안.(연준흠)
2007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교사의 효율적 팀티칭을 위한 단계별 협동 전략 기초연구.(김영미)
2008	EPIK and NEST-NNEST collaboration in Korea revisited.(Joo-Kyung Park)
2009	Effective models of English team teaching in Korean middle schools.(Jeong-Ok Kim)
2009	중등영어교육 현장에서 협동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이종복, 박현우)
2010	Attitudes of learners, NESTs, & Korean NNESTs toward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in Korea. (Foreman Walter, Chan-Kyoo Min)
2011	Learners' different views on Korean and native teachers of English.(Ree-Na Kim, Haedong Kim)

4) 원어민

원어민과 관련된 연구는 총 7편(12.07%)으로 1기에 2편, 2기에 5편이 이루어졌다. 이 중 Joo-Kyung Park(200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ETT 관련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원어민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대부분 원어민 수업의 효용성 및 원어민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
원어민 관련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저자)
2004	Teaching English overseas: From EFL instructors' perspectives.(Youngsang Kim)
2006	A research on methods for English native speakers' teaching in Korean EFL classes. (Seungbin Roh)
2008	EPIK and NEST-NNEST collaboration in Korea revisited.(Joo-Kyung Park)
2008	Practical tips for EFL native teachers and their employers in Korea.(Yong-Son Choi)
2009	Symbolic violence of the native speaker fallacy: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n NNES teacher.(Soo Joung Choi)
2011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 의지와 영어성적과의 관계.(남정미)
2013	A critical look at an English conversation class of a NEST.(Yanghee Kim, Youngkyong Jong)

5) 교수 방법

교사의 교수 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총 6편(10.34%)으로 1기에 2편, 2기에 4편이 이루어졌다. 이 중 Kyungja Ahn(2010)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교사 연수 관련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Kyoung-Ae Oh와 Young Mi Kim(2012)의 연구는 TEE 관련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표 8
교수방법 관련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저자)
2001	A teacher-initiated action research in a middle school.(Kyung-Suk Chang, Young-Ja Song)
2006	초등영어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교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영태)
2008	Prospective English teachers' reflection on their microteaching. (Jiwon Paek)
2009	EFL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Peer coaching. (Young-joo Bang)
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action research: A case study of an EFL teacher learner. (Kyungja Ahn)
2012	The effectiveness of code-switching and identity reconstruction. (Kyoung-Ae Oh, Young Mi Kim)

6) 교사 내적 요인

교사의 내적 요인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는 총 3편(5.17%)으로 1기에 1편, 2기에 2편이 이루어졌다. 이 중 Soo Joung Choi(2009)의 연구는 본 연구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교사 연수 관련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표 9
교사 내적 요인 관련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저자)
2002	An in-depth understanding of five Asian English teachers' beliefs. (Soo-Jeong Shin)
2009	Symbolic violence of the native speaker fallacy: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n NNES teacher.(Soo Joung Choi)
2009	반성적 마이크로티칭과 비원어민 예비 영어 교사의 외국어 교수 불안감.(김현진)

3. 연구의 적용 수준에 따른 분류

본 연구가 교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분석 연구인 관계로 그 대상은 크게 교사와 학습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교사 또는 학습자), 연구 대상 학습자의 수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구 대상 교사가 소속된 수준(연구 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적용 수준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그 분류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적용 수준이 대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 분류하고, 연구의 적용 수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 중등으로 분류되는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포함하여 분류한다. 또한 연구의 적용 수준이 특정 수준에 국한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준에 포함하여 분류하며, 연구 대상 학습자의 수준과 연구 대상 학습자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수준에 모두 포함시키고자 한다[6].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초등학교 관련 연구가 1기 6편, 2기 19편, 전체 25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21.37%), 중학교 관련 연구가 1기 7편, 2기 27편, 전체 34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29.06%), 고등학교 관련 연구가 1기 7편, 2기 26편, 전체 33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28.21%), 대학교 관련 연구가 1기 6편, 2기 19편, 전체 25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21.37%)로 나타나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비교적 각 수준별로 수행된 연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6] 예를 들어, 해당 연구의 연구 대상 학습자가 대학원생이고 그 연구 대상 학습자가 중등 영어교사인 경우, 연구 대상 학습자가 미치는 수준은 중등이 되므로 이 연구는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0
연구 적용 수준별 연구 현황

시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연구 편수	**6**	**7**	**7**	**6**	**26**
1기(1권~13권)	시기대비(%)	23.08	26.92	26.92	23.08	100
	수준대비(%)	24	20.59	21.21	24	22.22
	연구 편수	**19**	**27**	**26**	**19**	**91**
2기(14권~19권)	시기대비(%)	20.88	29.67	28.57	20.88	100
	수준대비(%)	76	79.41	78.79	76	77.78
계		**25**	**34**	**33**	**25**	**117**
(전체 연구 편수 대비 %)		(21.37)	(29.06)	(28.21)	(21.37)	(100)

1) 초등학교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초등학교 관련 연구는 총 25편으로 수준별로 분류한 전체 연구 편수 117편 대비 21.3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6편(24%) 2기에 19편(76%)가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26편 중 6편이 초등학교 관련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23.08%를, 2기에는 총 91편의 연구 중 19편이 이루어져 20.88%를 차지하고 있다.

1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김영미(2007), 김영태(2006), Eun-Mi Yang(1997), Kyoung-suk Chang(1996), Soo-Jeong Shin(2002), Youngsang Kim(2004)가 있고, 2기에는 권선희(2010), 김현진(2009), 남정미(2011), 이문복, 이노신과 조민철(2010), 이효신(2010), 장경숙, 김지영과 정규태(2011), 허근(2011), Eunhee Han(2010), Foreman Walter와 Chan-Kyoo Min(2010), Jiwon Paek(2008), Joo-Kyung Park(2008), Kyoung-Ae Oh와 Young Mi Kim(2012), Kyungja Ahn(2010), Namsoon Kim(2009), Seonghee Choi, Jeongsoon Joh와 Yoan Lee(2008), Soo Joung Choi(2009), Taesun Yang(2011), Yong-Son Choi(2008), Young-joo Bang(2009)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대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11편, TEE 관련 연구가 4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5편, 협동수업 관련 연구가 3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5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3편 수행되어 총 31편이 이루어졌다.

2) 중학교

중학교 관련 연구는 총 34편으로 수준별로 분류한 전체 연구 편수 117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비 29.06%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7편(30.59%) 2기에 27편(79.41%)가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26편 중 7편이 중학교 관련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26.92%를, 2기에는 총 91편의 연구 중 27편이 이루어져 29.67%를 차지하고 있다.

1기에는 김영미(2007), 김용오, 강용구와 강문구(2007), Kyoung-suk Chang (1996), Kyung-Suk Chang과 Young-Ja Song(2001), Soo-Jeong Shin(2002), Sook-Kyung Jung(2006), Youngsang Kim(2004)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권선희(2010), 김상겸과 임걸(2013) 김용오, 강용구와 송해성(2008), 남정미(2011), 오석진(2009), 이문복, 이노신과 조민철(2010), 이종복과 박현우(2009), 이효신(2010), 임병빈과 김재영(2008), 임병빈과 전영주(2009), Eunhee Han(2010), Foreman Walter와 Chan-Kyoo Min(2010), Hyoshin Lee(2012), Jeong-Ok Kim(2009), Jiwon Paek(2008), Joo-Kyung Park(2008), Kyoung-Ae Oh와 Young Mi Kim(2012), Kyungja Ahn(2010), Kyungsuk Chang, Hunwoo Joo와 Sieun Min(2013), Namsoon Kim(2009), Seonghee Choi, Jeongsoon Joh와 Yoan Lee(2008), Soo Joung Choi(2009), Sung-Ae Kim(2008), Taesun Yang(2011), Unkyoung Maeng(2008), Yong-Son Choi(2008), Young-joo Bang(2009)의 연구가 있다.

중학교 대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18편, TEE 관련 연구가 5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5편, 협동수업 관련 연구가 5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5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1편 수행되어 총 39편이 이루어졌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관련된 연구는 수준별로 분류한 전체 연구 편수 117편 대비 28.21%로 총 33편의 연구가 수행되어 중학교 관련 연구 편수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7편(26.92%) 2기에 26편(78.79%)가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26편 중 7편이 고등학교 관련 연구로 중학교와 동일하게 26.92%를, 2기에는 총 91편의 연구 중 26편이 이루어져 28.57%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동일하며, 1기에 중학교 대상 연구에서 Kyung-Suk Chang과 Young-Ja Song(2001)의 연구가 제외되고 새롭게 연준흠(1996)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2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이종복과 박현우(2009), Jeong-Ok Kim (2009)의 연구 등 2편이 제외되고 Ree-Na Kim과 Haedong Kim(2011)의 연구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고등학교 대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18편, TEE 관련 연구가 6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4편, 협동수업 관련 연구가 5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5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1편 수행되어 총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9편이 이루어져, TEE 관련 연구 1편 증가, 교수방법 관련 연구 1편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중학교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사간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동일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고등학교 대상 연구의 분류 결과가 중학교의 분류 결과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대학교

대학교 관련 연구는 총 25편으로 수준별로 분류한 전체 연구 편수 117편 대비 21.3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6편(24%) 2기에 19편(76%)이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26편 중 23.08%를, 2기에는 총 91편의 연구 중 20.88%를 차지하고 있다.

1기에는 김영미(2007), Eun-Pyo Lee(2001), Kyoung-suk Chang(1996), Soo-Jeong Shin(2002), Seungbin Roh(2006), Youngsang Kim(2004), 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김현진(2009), 남정미(2011), Eunhee Han(2010), Eunjeo Kim과 Sook Hee Choe(2011), Eunpyo Lee와 Eunkyung Kim(2010), Jiwon Paek(2008), Joo-Kyung Park(2008), Kyoung-Ae Oh와 Young Mi Kim(2012), Kyungsuk Chang과 Kyutae Jung(2011), Nahk-Bohk Kim(2011), Soo Joung Choi(2009), Soo Joung Choi(2012), Sung-Ae Kim(2008), Taesun Yang(2011), Taesun Yang(2011), Yanghee Kim과 Youngkyong Jong(2013), Yong-Son Choi(2008), Young-joo Bang (2009), Young Mi Kim(2009)의 연구가 있다.

대학교 대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4편, TEE 관련 연구가 9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3편, 협동수업 관련 연구가 2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7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3편 수행되어 총 28편이 이루어졌다. 대학교 대상 연구의 주제별 분류 결과는 다른 수준의 결과와 그 양상이 상이하다. 다른 수준의 결과에서는 교사연수가 가장 많고, 내적요인을 제외한 다른 주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학교의 경우에는 TEE와 원어민 관련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가 다른 수준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현장임과 동시에 정책 및 교육현상의 분석에 대한 책무를 갖는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4.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를 위하여 우선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로 구분한 후, 실증적 연구는 다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로 세분하였다. 또한 원어민 고용 및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을 하고 있는 연구(Yong-Son Choi, 2008)가 있어 본 연구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분류 기준에는 포함하기 곤란하여 이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고자 한다.

전체 분석 대상 연구 51편을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실증적 연구가 1기 9편, 2기 36편, 전체 45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88.24%)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론적 연구는 1기 3편, 2기 2편, 전체 5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9.80%)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연구 1편는 2기에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실증적 연구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1기 4편, 2기 17편, 전체 21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41.78%), 질적연구는 1기 3편, 2기 13편, 전체 16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31.37%), 혼합연구는 1기 2편, 2기 6편, 전체 8편(전체 연구 편수 대비 15.69%)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방법별 연구 현황[7]

시기	구분	실증 연구			이론연구	계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1기(1권~13권)	**연구편수**	**6**	**2**	**1**	**3**	**12**
	시기대비(%)	50.00	16.67	8.33	25.00	100
	방법대비(%)	26.09	13.33	14.29	60.00	
2기(14권~19권)	**연구편수**	**17**	**13**	**6**	**2**	**38**
	시기대비(%)	43.59	33.33	15.38	5.13	100
	방법대비(%)	73.91	86.67	85.71	40.00	
연구편수소계 (전체 연구수 대비 %)		23(45.10%)	15(29.41%)	7(13.73%)	5(9.80%)	51
계			45(88.24%)		5(9.80%)	51

1) 실증적 연구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교사 관련 실증적 연구는 총 45편으로 전체 교사 관련 연구 51편 대비 88.24%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9편(20%), 2기에 36편(80%)이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12편 중 10편이 실증적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83.33%를, 2기에는 총 39편의 연구 중 36편이 이루어져 92.31%를 차지하고 있다.

[7] 기타에 포함되는 연구는 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표는 기타에 포함된 연구를 제외하고 총 50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 45편 중, 양적 연구는 총 23편(45.10%)이고, 이를 방법별로 구분해 보면 1기에 6편(26.09%), 2기에 17편(73.91%)이 이루어졌다.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12편 중 6편이 양적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50%를, 2기에는 총 38편의 연구 중 17편이 이루어져 43.59%를 차지하고 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기에는 김영태(2006), 김용오, 강용구와 강문구(2007), 연준흠(1996), Eun-Pyo Lee(2001), Seungbin Roh(2006) 의 연구가 있고, 2기에는 권선희(2010), 김현진(2009), 남정미(2011), 오석진(2009), 이문복, 이노신과 조민철(2010), 이종복과 박현우(2009), 임병빈과 전영주(2009), 허근(2011), Eunhee Han(2010), Eun-Mi Yang(1997), Foreman Walter와 Chan-Kyoo Min(2010), Jeong-Ok Kim(2009), Nahk-Bohk Kim(2011), Ree-Na Kim과 Haedong Kim(2011), Sung-Ae Kim(2008), Kyungsuk Chang, Hunwoo Joo와 Sieun Min(2013)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양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9편, TEE 관련 연구가 7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1편, 협동수업 관련 연구가 5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2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1편이 이루어져 교사 연수 및 TEE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를 적용 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관련 연구가 9편, 중학교 관련 연구가 13편, 고등학교 관련 연구가 13편, 대학교 관련 연구가 8편이 이루어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2) 질적 연구

실증적 연구 45편 중 질적 연구는 총 15편(29.41%)이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기에 2편(13.33%), 2기에 13편(86.67%)이 이루어졌다.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12편 중 2편이 양적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16.67%를, 2기에는 총 39편의 연구 중 13편이 이루어져 33.33%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기에는 Soo-Jeong Shin(2002), Youngsang Kim(2004)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2기에는 이효신(2010), 장경숙, 김지영과 정규태(2011), Eunjeo Kim과 Sook Hee Choe(2011), Jiwon Paek(2008), Kyungja Ahn(2010), Kyungsuk Chang과 Kyutae Jung(2011), Seonghee Choi, Jeongsoon Joh와 Yoan Lee(2008), Soo Joung Choi(2009), Soo Joung Choi(2012), Taesun Yang(2009), Yanghee Kim과 Youngkyong Jong(2013), Young-joo Bang(2009), Young Mi Kim(2009)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질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6편, TEE 관련 연구가 4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3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3편, 교사 내적요인 관련 연구가 2편으로 분포되어 있어, 교사 연수 및 TEE 관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원어민 관련 연구 중 질적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적용 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관련 연구가 10편, 중학교 관련 연구가 9편, 고등학교 관련 연구가 9편, 대학교 관련 연구가 11편이 이루어져,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양적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3) 혼합 연구

실증적 연구 45편 중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는 총 7편(15.56%)이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기에 1편(14.29%), 2기에 6편(85.71%)이 이루어졌다.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12편 중 편이 양적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8.33%를, 2기에는 총 39편의 연구 중 6편이 이루어져 15.38%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하여 실시한 연구들은 1기에 Sook-Kyung Jung(2006)의 연구가 있고, 2기에는 김상겸과 임걸(2013), Hyoshin Lee(2012), Kyoung-Ae Oh와 Young Mi Kim(2012), Namsoon Kim(2009), Taesun Yang(2011), Unkyoung Maeng(2008)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혼합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5편, TEE 관련 연구가 2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1편으로 분포되어 있어 협동학습, 원어민, 내적 요인과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연구 수가 적어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합 연구를 적용 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관련 연구가 2편, 중학교 관련 연구가 6편, 고등학교 관련 연구가 6편, 대학교 관련 연구가 2편이 이루어져, 양적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이론적 연구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교사 관련 이론적 연구는 총 5편으로 전체 교사 관련 연구 51편 대비 9.8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3편(60%), 2기에 2편(40%)이 이루어졌고, 시기별 연구 총 편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기 연구 12편 중 2편이 실증적 연구로 1기 총 연구 편수 대비 25%를, 2기에는 총 39편의 연구 중 2편이 이루어져 5.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 실증적 연구와 달리 이론적 연구는 1기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 연구는 교사연수모형, 협동학습, 원어민 등 주로 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론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1기에 Kyoung-suk Chang(1996), Kyung-Suk Chang과 Young-Ja Song(2001), 김영미(2007)의 연구가 있고, 2기에는 임병빈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김재영(2008), Joo-Kyung Park(2008)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론적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사연수 관련 연구가 2편, 교수방법 관련 연구가 1편, 협동학습 관련 연구가 2편, 원어민 관련 연구가 1편으로 분포되어 있어 TEE 및 내적 요인과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증적 연구의 혼합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 수가 적어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합 연구를 적용 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관련 연구가 3편, 중학교 관련 연구가 5편, 고등학교 관련 연구가 4편, 대학교 관련 연구가 2편이 이루어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영어어문교육*의 1996년 창간호부터 2013년 19권 2호까지 게재된 교사 관련 연구의 분석을 통한 교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차경환과 김영규(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은 해당 분야의 연구 방향과 중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 학습자료와 더불어 교육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학습자의 특성, 요구,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책임진다는 점에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재교육은 교육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9권 50호의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628편의 분석 결과와 시대적,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교사 연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교수 방법, 협동학습,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교사 내적 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 51편을 선정하였다.

우선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의 편수,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크게 1기(1995년~2007년)와 2기(2008년~2013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연구의 편수는 1기(318편)와 2기(310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사 관련 연구는 1기 12편(1기 총 연구 수 대비 3.77%)와 2기 39편(2기 총 연구 수 대비 12.58%)로 약 3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연구 편수와 관계 없이 1기의 기간이 13년이고 2기의 실제 기간이 5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기에 교사 관련 연구가 더욱 더 집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영어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교사의 양성, 재교육 등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기적 분류를 기반으로 교사 연수, TEE, 교수 방법, 협동학습, 원어민, 교사 내적 요인 등의 주제에 근거한 분류를 실시한 결과 교사 연수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 TEE 관련 연구, 교수방법, 협동학습, 원어민, 교사 내적 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뒤를 이었다. 교사 양성 기관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는 개정된 교육과정, 변화되는 교육 정책 등 교육 현안 대한 파악, TEE 방법 및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학습 방법 전달 등 새로운 정책의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신장을 위하여 현직 교사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사 관련 연구를 분석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연구의 적용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제나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마지막 기준은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질적 혼합 연구로 세분되는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편을 제외한 45편은 실증적 연구이며[8], 그 중 23편의 연구가 양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영어어문교육* 학술지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학술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여년간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교사 관련 연구 51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사 관련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교사 관련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교사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의 흐름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상철, 김주후. (2011).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현대영어교육, 12*(2), 49-73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교육 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권선희. (2010).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와 교사 변인 연구. *영어어문교육, 16*(4), 107-131.

김상겸, 임걸. (2013). 수업언어 및 학업수준에 따른 중등 영어교사의 교수언어 분석 사례연구. *영어어문교육, 19*(2), 195-216.

[8] 분석 대상 논문 중 1편은 연구 방법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은 이미 밝힌바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김신혜, 곽병권. (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3), 211-241.

김영미. (2007).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교사의 효율적 팀티칭을 위한 단계별 협동 전략 기초연구. *영어어문교육, 13*(3), 177-201.

김영태. (2006). 초등영어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교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영어어문교육, 12*(4), 159-183.

김용오, 강용구, 강문구. (2007). 중등 1 급 정교사(영어) 자격연수 프로그램 분석: 대전,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3*(3), 203-226.

김용오, 강용구, 송해성. (2008). 중등 1 급 정교사(영어) 자격연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4*(1), 97-122.

김현진. (2009). 반성적 마이크로티칭과 비원어민 예비 영어 교사의 외국어 교수 불안감. *영어어문교육, 15*(4), 265-290.

김혜련, 고경석. (2008). 초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실태: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14*(2), 23-43.

남정미. (2011).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 의지와 영어성적과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7*(2), 139-160.

박미정, 나경희. (2009).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협동수업이 중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영문학, 53*(1), 61-68.

박정숙, 김대진. (2000). 원어민 영어교사 팀티칭의 교육 효과: 대체적 수업 모형과의 비교 실험.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1), 97-121.

배두본. (2000).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연구, 12*(1), 113-144.

송민종, 임정완. (2010).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10 년: 읽기 및 쓰기 관련 연구 회고.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60-81

연준흠.(1996).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통한 의사 소통 능력 신장 방안. *영어어문교육, 2*, 25-80

오석진. (2009). 중등 영어 1 급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영어어문교육, 15*(1), 203-228.

유현정. (2006). 학술지논문을 통한 영어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3), 339-368.

이명관, 박옥희. (2010).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와 말하기 논문 고찰: 현대영어교육 학술지를 중심으로.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41-59.

이문복, 이노신, 조민철. (2010). 등 영어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화 연수 모형 개발 연구. *영어어문교육, 16*(3), 269-289.

이종복, 박현우. (2009). 중등영어교육 현장에서 협동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영어어문교육, 15*(3), 353-380.

이효신. (2010). 교내-교외 통합형 영어교사 연수 사례 연구: 한국 캠브리지 ICELT 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6*(1), 259-2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임병빈, 김재영. (2008). 혼합식 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교사 연수 활성화 방안. *영어어문교육, 14*(1), 145-167.

임병빈,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장경숙, 김지영, 김규태. (2011). 초임 교사 멘토링을 통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후 지속적 전문성 신장에 대한 사례 연구. *영어어문교육, 17*(2), 219-245.

전영주.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2 차 영어논술 시험 분석 및 지도 방안. *영어영문학 연구(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5*(4), 157-183.

정광주. (1998). 원어민 교사의 실제 수업과 그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마산.

차경환, 김영규. (2010). 한국응용언어학회 학회지 게재 논문(1983-2008)에 나타난 연구 경향 분석, *응용언어학, 26*(1), 91-110.

차경환, 이원석, 심재황. (2005). 영어교육 학술지에 실린 듣기 논문의 역사적 검토. *영어교육, 60*(2), 29-58.

최희경. (2008).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한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목소리: 현황과 개선 방안 탐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333-361.

허근. (2011).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방안 연구. *영어어문교육, 17*(4), 395-411.

Ahn, Kyungja. (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action research: A case study of an EFL teacher learne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2), 1-24.

Bang, Young-joo. (2009). EFL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Peer coach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2), 1-25.

Chang, Kyung-Suk & Song, Young-Ja. (2001). A teacher-initiated action research in a middle school.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7*(1), 1-19.

Chang, Kyung-Suk. (1996). Content and process in language teacher train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2*, 193-212.

Chang, Kyungsuk & Jung, Kyutae. (2011). A case study of English teacher development through online supervis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1-22.

Chang, Kyungsuk, Joo, Hunwoo & Min, Sieun. (2013). Evaluation of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esting professionalis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1-22.

Choi, Seonghee, Joh, Jeongsoon, & Lee, Yoan. (2008) Developing English discourse competence through self-directed practices of non-native English teacher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2), 25-46.

Choi, Soo Joung. (2009). Symbolic violence of the native speaker fallacy: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n NNES teache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5*(3), 33-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hoi, Soo Joung. (2012). English as an instructional medium in Korea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professo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3), 25-51.

Choi, Yong-Son. (2008). Practical tips for EFL native teachers and their employers in Kore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3), 29-47.

Foreman, W., & Min, Chan-Kyoo. (2010). Attitudes of learners, NESTs, & Korean NNESTs toward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in Kore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2),25-44.

Han, Eunhee. (2010).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NNESTs) versus 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Percep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1), 1-18.

Jung, Sook-Kyung. (2006). Utilizing debate techniques in English speaking clas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2*(1), 103-129.

Kim, Eunjeo & Choe, Sook Hee. (2011). Code-switching of English learners in the TEE progra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7*(3), 99-118.

Kim, Jeong-Ok. (2009). Effective models of English team teaching in Korean middle school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5*(3), 105-127.

Kim, Nahk-Bohk. (2011). Korean students' perceptions of free-talking and international professors' role recogni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7*(3), 119-139.

Kim, Namsoon. (2009). The effects of development strategies used by teacher trainers at an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99-118.

Kim, Ree-Na & Kim, Haedong. (2011). Learners' different views on Korean and native teach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157-175.

Kim, Sung-Ae. (2008). Suggestions to improv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 education in Kore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3), 133-154.

Kim, Yanghee & Jong, Youngkyong. (2013). A critical look at an English conversation class of a NES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2), 103-132.

Kim, Yongsang. (2004). Teaching English overseas: From EFL instructors' perspectiv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0*(3), 67-88.

Kim, Young Mi. (2009).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Does it promote cultural correction or cultural continuit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5*(4), 109-136.

Lee, Eun-Pyo. (2001). The positive role of mother tongue as written form in English clas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7*(1), 21-34.

Lee, Eunpyo & Kim, Eunkyung.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wo types of English classes: TETE and TETE&K.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2), 93-11 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Lee, Hyoshin. (2012). Exploring what Korean teachers of English need for effective professional development: from peer trainers' perspectiv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3), 149-174.

Maeng, Unkyoung. (2008). English teachers' language anxiety in the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in the classroo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2), 149-172.

Oh, Kyung-Ae & Kim, Young Mi. (2012). The effectiveness of code-switching and identity reco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115-141.

Paek, Jiwon. (2008). Prospective English teachers' reflection on their microteach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3), 241-257.

Park, Joo-Kyung. (2008). EPIK and NEST-NNEST collaboration in Korea revisited.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141-160.

Roh, Seungbin. (2006). A research on methods for English native speakers' teaching in Korean EFL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51-78.

Shin, Soo-Jeong. (2002). An in-depth understanding of five Asian English teachers' belief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8*(1), 103-124.

Yang, Eun-Mi. (1997). Examining teachers' beliefs about teaching English in a teacher training progra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3*, 71-93.

Yang, Taesun. (2009). English teachers' responses to doing action researc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2), 245-259.

Yang, Taesun. (2011).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bout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TEE cours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7*(3), 237-254.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Pre-/In-service

윤상돈
광풍중학교
330-9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021-11
Tel: 041-566-5989
Email: doolyys@hanmail.net

Received in January 15th, 2014
Reviewed in February 26th,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5th, 201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